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31-34	제2독서	히브리서 5:7-9	복음	요한 12:20-33
--------	------	----------------	------	------------	----	-------------

◎ 말씀 <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

오늘 복음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25절)라는 말씀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4절)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주님의 역설적인 이 말씀을 듣자면 정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분들과 함께 자리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이랍시고 할 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깐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성경공부도 하고, 신앙강의도 듣고, 피정도 하며 여러 단체 활동을 통해 봉사를 하다 보니 신앙인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부족한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해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은 오히려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들어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머리나 입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머리로는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는 깊이 새기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몸으로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로는 하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며 인간적 갈등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은 신앙인이면 거쳐가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밀알이 썩어 싹을 틔우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썩어 지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싹은 죽고 썩은 것을 거름삼아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이것은 진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이래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원은 주님이시며, 삶의 모습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에 입각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기에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왕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했으니 철저히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3월20일(화)	사순 제5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340.00 \$ 1,073.00
3월21일(수)	사순 제5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96.00 \$ 58.00
3월22일(목)	사순 제5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2차헌금	\$ 122.00 \$ 359.00
3월23일(금)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0.00 \$ 0.00
3월24일(토)	사순 제5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4,048.00
3월25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9명 성인: 204명

교무금봉헌자 강성만(1-6월) 김옥동. 임창순(3-4월) 장순욱(1-4월) 이광훈. 이정규(1-3월) 신영후. 이은로. 전정욱(2월) 윤영자. 김계숙. 송미자. 김병길. 안강순. 지복원. 허용희. 이강덕. 나송희(3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주일미사 - 의무이자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주일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교회법의 규정(제1247조)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주일이 아닌 의무 축일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이다.) 무엇보다도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마태 28,1)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주간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냈고, 이 규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옛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이렛날에는 복을 내리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창세 2,3 참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날인 주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안식일은 ‘주일’ 안에서 참된 의미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른 모든 예배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 신비가 그분의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75항 참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로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는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

히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일’에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여 구원의 보증인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창조에 동참함으로써 내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주일미사 참석을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의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영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주신 구원, 새로운 창조에 참여함으로써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잘 간직하며 살기 위한 권리입니다. 성체를 모시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모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은 그저 의무적이고 습관적이며 형식적으로 성당에 갔다 오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딸로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의 생명이 솟아납니다.”(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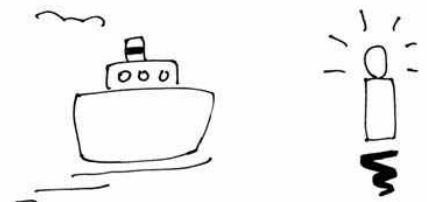
- 윤안나/황애다/원정은.카타리나/성낙순.안나 백정심.막달레나/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 황순이.마리아/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 신용경.그레고리오/엄모니카/배미성.오틀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덕빈.데레사의 영혼	송돈희.요셉	생	(생일)류승교.바로로, 조던강 의 영육간 건강	류재순.마리안나
연	최갑순.마리아의 영혼	류재순.마리안나			
연	제임스 머케이의 영혼	국마리아	생	김영숙.요세피나의 영육간 건강	김 헬레나

◎ 낚은 배 ◎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낚은 배는 열심히 기도하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이예요?
 배의 몸은 스르르 흔들리더니 출렁거리며 호수 위를
 가는 거예요 어느새 ‘새배’가 되어서 말이죠?
 호수 저쪽엔 한 분이 환히 웃으셔서 계셨습니다.
 (강은교 클라라.시인/김복태 사도요한.화가)



간
장
종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Kim' s Pro Handymen 주택수리일체.무료견적 수리비용 절감 5810 Shadow Creek Rd. Sacramento CA,95841 김광열 (510)789-7876 kimkwangyeo152@gmail.com</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	---	---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	--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	---	--

--	--	--	--

